



“더민주 미래는 바로 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 철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혼전의 당권 레이스... 호남표심 고민 또 고민

더민주 전당대회 D-5... 뚜렷한 비전 없어 표심 안갯속 친문 막판 결집 가능성... 대권 주자들도 판세에 촉각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결정지을 '8·27 전당대회'가 21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호남 민심의 향배와 전대 결과에 따른 당내 역학구조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고민하는 호남 표심=더민주의 당권 주자들은 아직은 냉랭한 호남 민심을 견인할 만한 역동성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호남 표심은 막판까지 지지 후보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권 주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호남에서의 압도적 우세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어 막판 호남 표심을 공략할 메시지에 따

라 판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미애 후보는 과거 '3보1배'의 총정교 5선 의원의 경륜, '호남의 며느리'라는 인연을 내세우고 있고 광주 출신의 김상곤 후보는 혁신위원장 출신답게 혁신과 변화를 기치로 '광주 정신'에 호소하고 있다. 이종걸 후보는 전문(전문재인) 후보가 당권을 잡는다면 대선 승리의 역동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호남의 비문(비문재인) 정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 관계자는 "조지력을 기준으로 판세를 보자면 추 후보가 약간 앞서면서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역전을 노리는 상황"이라며 "막판 호남에 대한 메

시지가 미세한 판세에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역학구조=추미애, 김상곤 후보는 주류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 후보가 20대 총선을 계기로 형성된 친문(전문재인)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김 후보는 민평련, 86 그룹 등을 중심으로 한 당내 구주류 진영의 측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대에서 추 후보가 승리한다면 당의 무게중심이 친문 인사들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반면, 김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구주류 진영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비주류 진영이 존재감을 회복하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층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대를 바라보는 차기 대권주자들의 속내도 복잡하다. 우선 전 대표의 경우 전

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추미애,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다면 '도로 문제인 당'이라는 냉소에 직면할 수 있고 이종걸 후보가 이변을 일으킨다면 '당심의 반란'으로 평가되면서 대선 가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대 막판, 친문 진영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 당내 대권주자들도 전대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 국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선 막판, 자신들의 당내 지지 조직을 움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암중모색’ 野 잠룡들

안철수, JP·孫 회동 약속... 박원순, 孫 찾아 정치활로 모색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3당 구도'로 형성된다 여당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정치적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 3당 모두 정권 교체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집권 방정식을 풀기 위한 암중모색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1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박형규 목사 빈소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만났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전의 말씀대로 '저녁이 있는 삶'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며 "깊은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손 전 고문은 안 전 대표의 손을 잡으며 "언제 한번 좋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화답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꾸준히 손 전 고문 영입에 공을 들여왔지만 손 전 고문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회동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를 예방했다. 두 사람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고리로 각별한 인연을 이어온 만큼 이날 회동은 내년 대선에서 '호총(호남·총남) 연대론'과 맞물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총리와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30여분 동안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예방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총리께서 국민의당이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설명하고 매일 국민을 설득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이날 박 비대위원장을 배웅하며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냉면을 먹자"고 제안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20일 김종필 전 총리의 '냉면 회동' 제안에 대해 "추후 냉면을 먹으면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들을 것"이라며 흔쾌히 동의했다. 지난 16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고문이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다. 휴가 중인 박 시장이 휴가 첫날 첫 일정으로 전남 강진에 접거 중인 손 전 고문을 찾아간 것이다. 양측은 '오래된 사이'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더민주 전대에서 친문(전문재인)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의 대권 입지가 좁아지면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당내 비주류 진영과의 결합을 통해 집권을 위한 야권의 '새 판짜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종인 다시 '개헌론'

퇴임 회견 "초당적 특위 설치를... 대선 후보들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개헌론을 다시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정당, 책임지는 정당, 안보 정당의 틀이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헌"이라며 "개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 특위 설치를 다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민주의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개헌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전대 직후 개헌 입장과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로 마찰을 빚는 한중관계와 관련해 "한중관계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전제, "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

와 생존문제지만, 한중은 경제와 번영의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아직 전략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잘못된 경제구조가 국민의 삶을 양극화의 빛에 빠뜨리고 있다. 양극화는 국민의 삶의 근본에서 시작되는 분열"이라며 "제가 강조한 경제민주화는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가치에 우선하며 국민의 첫 관심사다.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당내 계파 정치로 도로민주당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 "는 질문에 "정당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하려면 여러 계파의 경쟁을 조율할 수 있어야 정당 생명력이 길어진다"며 "어느 한 계파가 당의 전체를 장악하는 상황이라면 효율과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청문회 증인에 막힌 추경... 오늘 처리 사실상 무산

새누리-더민주 대립에 심사 파행... 국민의당 중재 주목

8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산·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가 줄줄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이 추경 처리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당리당락에 '대국민 약속'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19일로 사흘째 파행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치지 못해 소위원회 심사는 손도 못 댔다. 오는 22일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새누리당에 추경안 처리를 24일로 미루는 방안을 타진했으며, 국민의당은 26일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예결위 파행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청문회에 부르는 야당의 주장과 여당의 반대가 맞선 탓이다. 새누리당은 최 의원과 안 수석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의도가 이들에게 망신을 주거나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진전을 보지 못하는 증인 채택 협상과 별개로 여야의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 합의에 따라 시급한 추경부터 통과시키자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2일 추경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10월) 본예산으로 돌려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는 길밖에 없다"고 '추경 포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새누리당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싸잡아 추경의 발목을 잡는 '반(反) 민생 정당'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 두 야당은 '적반장'이라고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 의원과 안

수석 등 '정권 실세'를 지키려고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 사태를 얼렁뚱뚱 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 마이크만 잡으면 급하고, 마이크가 없으면 느긋하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증인채택 협상을 빌미로 추경 무산을 유도하고,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입장을 절충하면서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접촉해 일부 증인만 합의하고 예결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